

학생독후활동

소 속 : 현대청운고등학교 3학년 06반 19번

작 성 자 : 이승준

책 이 름 : 디지털 헬스케어: 의료의 미래(감상문쓰기)

저 자 : 최윤섭

글 자 수 : 1157자

관련과목 : 없음

작성일자 : 2022년 08월 17일

제목

'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'를 읽고

현대시대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이다. 디지털 경제, 디지털 화폐, 디지털 산업, 디지털 교육등등. 그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는 제목 그대로 의료의 미래라고 생각된다. 여기서 디지털 헬스케어란 치료제로서의 개념을 말한다.

즉 SaMD(Software as a Medical Device)라는 신개념이 생긴 것이다. 그 예는 중독 치료 목적의 리셋이라는 앱, 아칼리 인터랙티브의 ADHD치료용 게임, 가장 큰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인 오마다 헬스, '늬움'이라는 체중감량 및 당뇨예방 스타트업, VR기반의 PTSD치료(외사성 스트레스 장애), 화상 환자의 VR 진통제, 알츠하이머 치료 앱 드 테라 사이언스, 우울증 치료 챗봇, 수면제 앱 빅 헬스 등이 있는데 특히 PTSD치료제 중 비추얼 이라크(이라크 전쟁), 비추얼 베트남(베트남 전쟁)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확연히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었다. 또 화상 환자의 VR 진통제, 알츠하이머 치료앱, 드테라 사이언스, 우울증 치료 챗봇, 수면제 앱, 빅 헬스 등이 있다. 이것은 이러한 앱들이 치료제로써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.

디지털 치료제는 형태와 사용방방식이 기존의 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치료제다. 첫 번째 난관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이다. FDA는 pre-cert라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안을 시험하고 있는데, 이는 바로 특정 의료기기 제품을 인허가하기보다는, 이를 개발하는 제조사를 규제하는 것이다. 그 제조사가 SaMD를 제조하고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며 인증을 주고, 그 제조사가 개발한 SaMD는 관소화된 과정을 거쳐 허가를 주는 것이다. 두 번째 난관은 보험사가 보험적용을 해줄까하는 것이다. 세 번째 난관은 의사가 과연 처방할 것인가이다. 디지털 치료제가 기존에 쓰던 약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, 혹은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.

세계는 이처럼 디지털 헬스케어의 큰 파도가 일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뒤쳐져 있다.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를 위해선 규제개혁, 식약처와 심평원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신설, 부처간 거버넌스를 위해 다부처 협의체가 필요하고 스타트업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 나도 의과대학에 가서 기초적 의학 공부를 한 이후에 IT와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